

# 정책조정실 활동사항

##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안 설명회 진행

정책조정실은 7월 한달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신경분리안에 대해 현장 농업인과 농협관계자들에 게 설명하고, 질의와 의견을 받기 위한 “농협중앙회 신용·경제사업 분리방안 전국순회 설명회”를 개최 하였다.

7월 15일 150여명의 농업인과 농협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전라북도 설명회를 시작으로 마지막 제주도 설명회를 끝으로 7월 한 달 동안 7개 도를 순회하면서 전국의 농업인에게 농협개혁위원 회의 신경분리방안을 설명하고, 농업인이 생각하는 보완점과 의견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였다.

## 선진화위원회 대응활동

지난 4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농업 선진화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정책조정실은 농민연합 차원에서 ‘선진화 핵심의제에 대한 농식품부 공식입장’에 대 한 답변자료를 요청하였다. 내용은 보조금 개편,

R&D 효율화, 농어업 금융체계 개편 등 6개 안건에 관한 것이다.

한편 강우현 중앙회장이 참석하고 있는 선진화위원 회의 경쟁력 분과는 농업보조금 개편 원칙, 농어촌 복지향상 방안과 직불제 개편,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방안 및 농어업선진화위원회 1차 추진사항 보 고(안)을 차기 본위원회에 상정하였다.

## 유통공사 수입쌀 홍보 관련 대응 활동

6월 30일 국회 농식품위 소속 김우남 의원의 자료 에 의해 붉어진 유통공사의 밥쌀용 수입쌀 판매 활 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파문과 관련해 중앙연 합회 정책실에서는 성명, 항의방문 및 공개질의서 발송을 통해 유통공사 파문에 대응활동을 지속했다. 특히 최근 국내 쌀 재고량이 증가하여 오는 9월 수 확기 쌀 매입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차원에 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할 유통공사에 대한 책임론을 지적하며, ▲ 밥쌀용 쌀 에 대한 관측 엄금, ▲ 원산지표시에 대한 업체 교육 과 계몽활동 강화, ▲ 밥쌀용 쌀의 재고물량 발생시 일정기간 이후 전량 폐기, ▲ 국내 쌀 재고문제 해소 를 위해 2010년 내 해외 쌀시장 개척(가시적 성과 도출)을 요구했고, 유통공사 측은 수입쌀 기본계획 을 즉각 철회하고, 수입쌀 재고량 처분과 국내 쌀수 급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 다. ●